

---

# INVESTORS OF INSIGHT

---

12월 경제 동향 .....	1페이지
지표로 보는 한국 경제 - CSI .....	2페이지
뜨거운 감자 - 물가 .....	4페이지
경제기사 풀어보기 - 중국 금리 상승 .....	6페이지
참~ 쉬운 경제 교실 - 통화량(3) .....	7페이지
금융생활 길잡이 - 신용(2) .....	8페이지
투자선행지수 .....	11페이지

여러분의 재정목표달성을 위한  
*‘Polaris’*

사단  
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062) 431 - 6339  
<http://www.kjecc.or.kr>

## □ 12월 경제 동향

### 세계경제,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회복 달성

### 높은 실업률, 재정건전화, 소비심리 회복 등 과제는 여전

12월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정학적 문제를 뒤로한 채 경기는 안정을 되찾았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악재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1년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대체로 2010년의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편, 주식시장이 약진하는 가운데 미국공채의 인기도 여전했다. 이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대에 달하는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소비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가 앞으로 미국경제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했던 중국은 출구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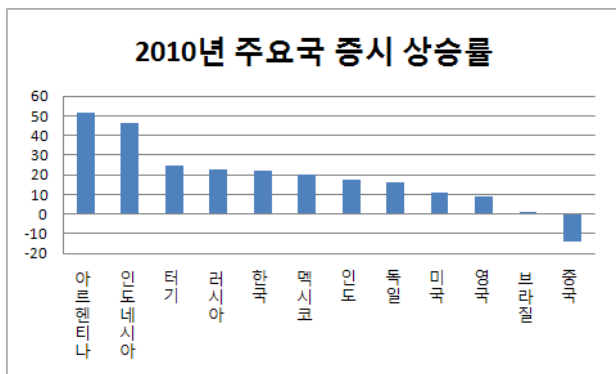
있다. 시중에 엄청난 자금을 푸는 경기부양책의 결과 빠른 경제회복에는 성공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물가상승이라는 큰 난제가 떠오른 것이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1%를 기록함에 따라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의 '차이나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2011년에도 긴축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경기가 하강하는 모습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중국경제의 하강속도이다.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으나 만일 급격한 침체로 빠진다면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찬물을 튀길 가능성도 있다.



이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유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미국이나 신흥국과는 달리 악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시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재정위기 문제가 발목

을 잡고 있는 상황은 2011년에도 여전한 전망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재정위험 국가 중 스페인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은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과는 달리 상당한 경제대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와 각종 경제기관도 이구동성으로 스페인이 위험에 빠질 경우는 타격이 크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2월에도 계속 순항 중이다. 주식시장은 KOSPI가 2051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해를 마감했다. 금융위기 전 2007년의 7월에 기록한 고점인 2085포인트에도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연간 상승률은 21.88%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상위에 있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기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의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았다는 점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위기를 잘 넘겨왔고 한국기업들의 성과가 뛰어난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한 만큼 시장의 과열과 지나친 낙관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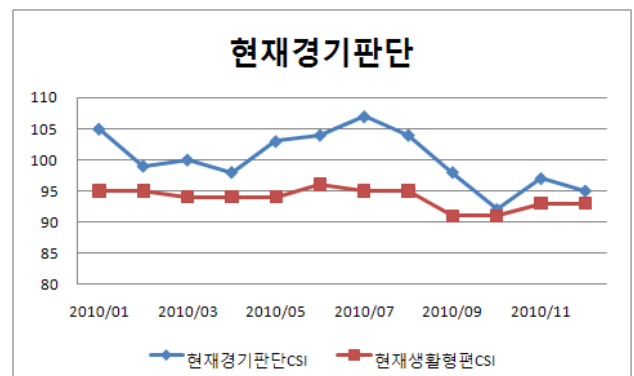
## □ 지표로 보는 한국 경제

### 소비자동향지수(C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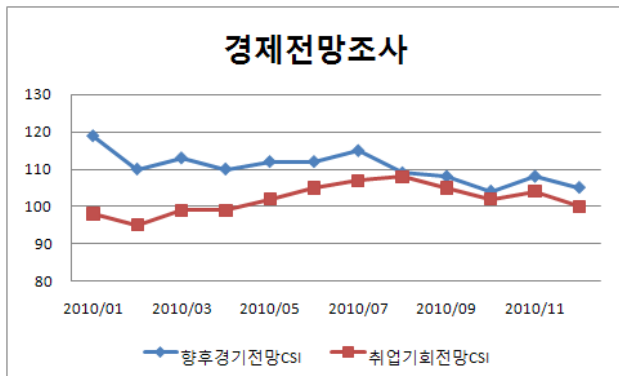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 CSI)는 장래의 소비 지출 계획이나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이다.

소비자동향지수는 크게 경기인식, 경제전망, 소비지출전망, 자산가치전망 부문으로 나뉘어 작성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향후 전망이 좋아진다고 응답한 가구가 나빠진다는 가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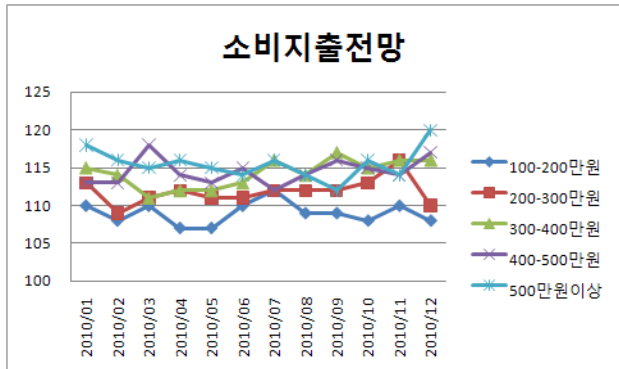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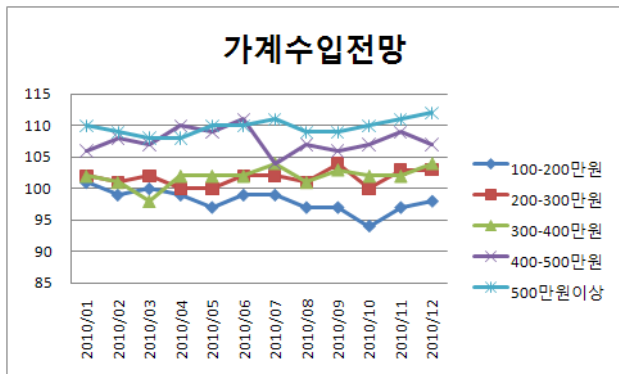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생산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낸 것이라면,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담고 있다.



먼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현재 경기판단 지수는 하반기 이후부터 하락해 12월 95를, 현재 생활형편 지수도 93을 기록하고 있다. 100이하의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가계가 더 많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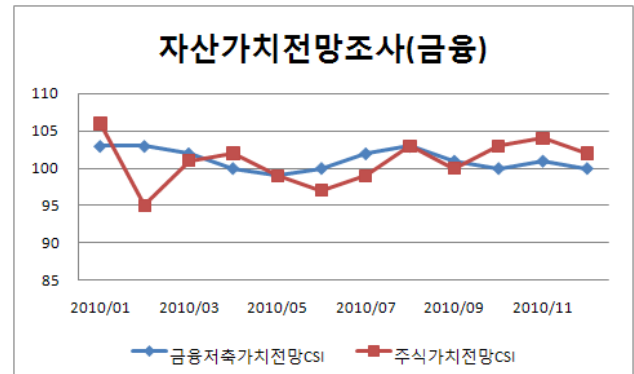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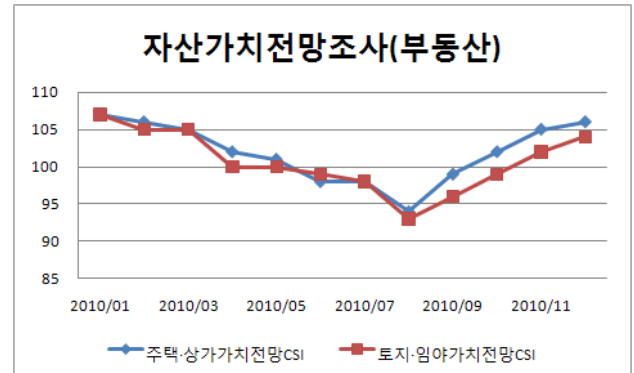


경제전망에 대한 조사를 보면 앞으로 경기에 대한 지수는 12월에 105를, 취업전망 지수는 100으로 둘 다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경제전망 역시 낙관하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소비지출 전망 부문은 가계수입과 소비지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문은 가계의 소득구간별로 구분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소득이 높을수록 지수가 높

게 산출되었다. 소비지출전망은 소득구간에 따라 지수의 움직임이 매우 달랐는데, 100~300만원 구간은 지수가 급락, 400~500만원 이상 구간은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기하락 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가치 전망을 살펴본다. 이 부문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전망을 선별해보았다. 2010년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텅 빈 상업용 건물이 늘어나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8.29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점차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금융자산에서는 하반기에 실질금리가 (-)로 떨어지며 저축에 대한 전망이 하락하는 반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점차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뜨거운 감자 - 2011년 경제의 복병, 물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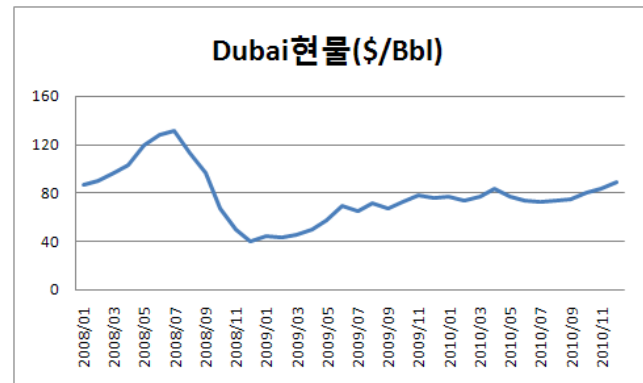
2010년 한 해 동안의 경제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화려한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며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증시도 KOSPI가 2000선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니 현재의 좋은 경제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경기가 꾸준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회복세를 위협할만한 요소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어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내년 경기를 위협할 요소들은 북한의 태도, 중국의 물가상승, 미국경기의 둔화, 환율 분쟁, 과잉 유동성,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에 각종 산업 원자재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 알아본다.

### 되살아나는 2008년의 악몽...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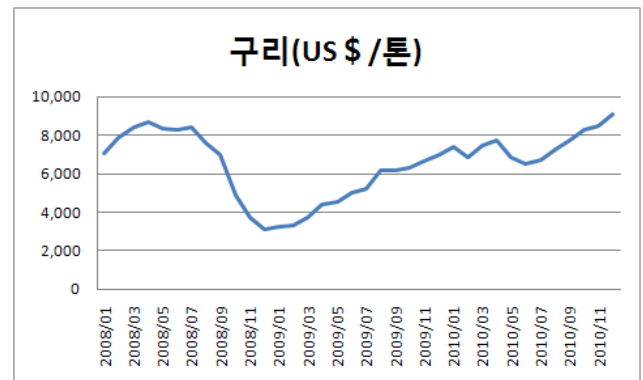
지난 2008년 우리는 금융위기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기름값 때문에 적지 않게 고생을 했었다. 당시 두바이 기준 원유가격이 배럴당 140\$를 돌파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 기업체들을 역시 연료비 걱정에서 몸서리 쳤었다. 당시 유가상승의 원인은 경기가 과열됨에 따라 석유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글로벌 투기세력이 몰려들면서 가격을 급등시킨 점도 있었다. 이번 유가상승의 원인도 이와 유사하다. 금융위기 이후 석유의 주 소비지인 선진국들의 경기가 주춤하면서 수요가 부족했으나 넘치는 과잉 유동성이 결국에는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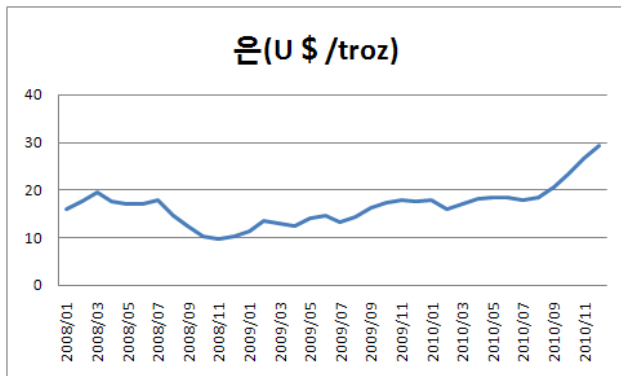
유시장에도 흘러들어 간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상승속도를 더하기 시작한 원유가격은 9월 평균 75\$에서 12월 평균 89\$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 주요 산업광물...구리와 은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여러 광물들 중에서 구리는 가장 대표성을 띄고 있다.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구리가격의 변동은 제조업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은은 금 다음에 떠오르는 귀금속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원재료로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뉴스에서는 금값의 고공행진이 크게 보도되지만 실상 은의 상승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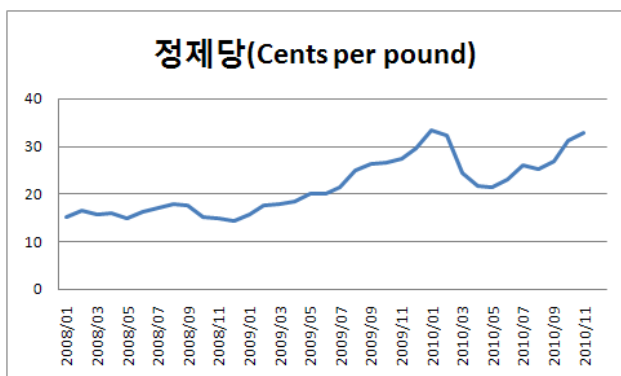




구리와 은, 이 대표적인 원자재들의 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다. 제조업이 집중된 아시아 지역의 수요증가와 함께 과잉유동성에서 태어난 투기자금의 가격 끌어올리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넘치는 달러를 통해 원자재 확보에 열을 올리는 점 또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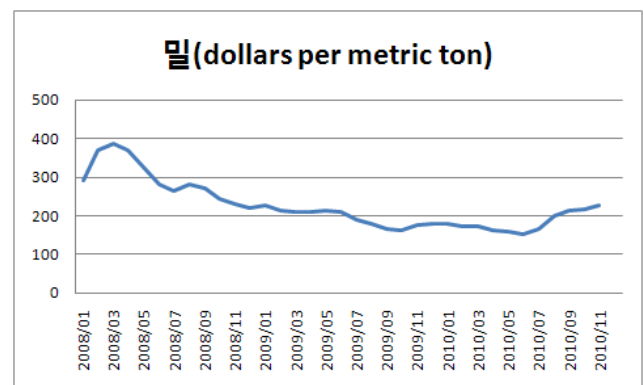
### 식품가격상승 유발...설탕과 밀가루

석유와 광물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최근 설탕가격과 밀가루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가공업체들이 연이어 제품 가격을 올리려하기 때문이다.



설탕이나 밀가루와 같은 식품 원재료는 사탕수수나 소맥과 같은 곡물의 작황과 연관이 깊다. 소맥의 주요 작황지인 러시

아에서는 가뭄과 고온현상, 산불로 인해 수확량 급감이 예상되자 자국의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금지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조치로 국제 소맥가격의 상승이 촉발되었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설탕 역시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호주 등의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설탕과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빙과, 음료 등의 원재료이다. 국내 식품가공업이 과점체제로 이루어진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번 식품가격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원자재 가격상승은 원유이든 설탕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어느 하나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농작물을 기르기 위한 각종 유지비와 농기계의 연료비가 증가하므로 농작물의 가격상승을 일으킨다. 반대로 설탕가격이 오르면 각종 식품가격이 오르고 이는 음식서비스업이나 고용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로 이어져 원유채굴기업의 비용 증가까지 연결된다.

- 2011년 2월호로 이어집니다.



## □ 경제 기사 풀어보기

### ‘은행권 현금부족’ 중국 시중금리 3년 고점 [머니투데이 12월 23일]

은행권의 현금 확보가 치열해지며 중국의 시중금리가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중국은행간 자금조달센터(NIFC)가 23일 고시한 은행 간 대출 금리인 7일물 리포(Repo)금리는 전일대비 150bp 오른 5.67%를 기록하며 2007년 10월 이후 고점을 나타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금경색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이번 주에만 260억 위안(39억 달러)을 금융시장에 공급했음에도, 은행권 지급준비율 인상 후 연휴·월말 수요가 겹치며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류 준유 초상은행 채권 애널리스트는 “연휴 기간 동안 늘어날 자금 수요에 대비하고 월말 예대율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10일 시행된) 지급준비율 인상 이후 모두가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0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50bp 추가 인상했다. 중국 6개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율은 19%까지 올랐으며, 기타 대형은행의 기준율도 18.5%까지 상승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총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지급준비율입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고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위상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함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식료품 중심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정책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저렴한 노동력으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했던 중국이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근원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금융완화정책을 폐기하고 올해에만 여섯 번의 지급준비율 인상,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재할인율을 2년 만에 인상함으로써 유동성을 축소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긴축정책으로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금리의 인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발 인플레이션은 세계경제에 있어 위험요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긴축정책이 지나쳐 급작스럽게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세계경제는 오히려 성장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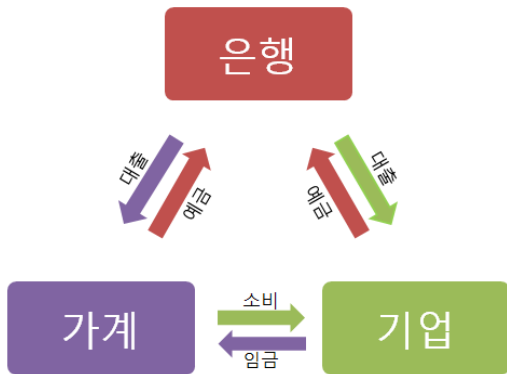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지난 미국 발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책기조와 중국경제의 동향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 □ 참~ 쉬운 경제 교실 - 통화량(3)

### 돈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 신용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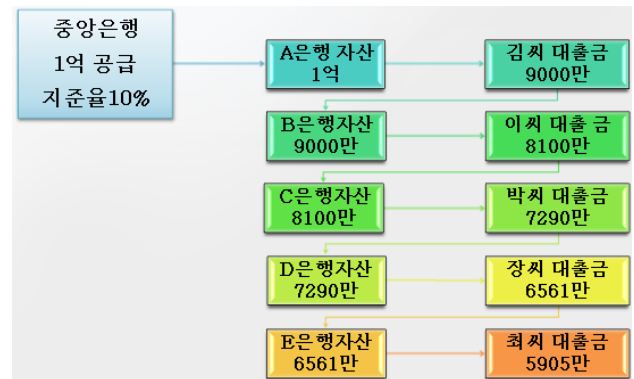
지난 호에서는 신용화폐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호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계에 돈을 공급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하 은행)은 가계와 기업의 여유자금을 예금의 형태로 받아 자금이 필요한 가계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과 함께 대출이자를 대출자로부터 받아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예금이자를 지급해줍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은행의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신용화폐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이 대출을 통해 시중에 풀려 나가면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출이 현금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단지 통장잔고에 숫자가 늘어날 뿐입니다. 진짜 현금은 그대로 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다른 대출을 해주기 위한 은행자산으로 남

아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 예금(현금)을 바탕으로 계속 대출을 반복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현금은 그대로이지만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통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현금(본원통화) 1억원을 시중 은행에 공급하면서 지급준비율을 10%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 총예금에서의 현금 비율입니다.

A은행은 중앙은행이 공급해준 1억원에서 10%인 1000만원을 제외한 9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사업가인 김씨가 공장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9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시중에 9000만원이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공장을 지어주고 김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은 설비업자가 B은행에 전액을 예금을 하면 B은행은 10%를 제외한 8100만원을 이씨에게 대출할 수 있습니



다. 통화량은 8100만원이 더 늘어났고 이 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합니다. 주택의 원래 주인은 지불받은 돈 8100만원을 다시 C은행에 예금합니다. C은행은 8100만원 중 10%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7290만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기위해 박씨가 대출을 받으면 또다시 7290만원의 통화량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과정은 D은행과 E은행에서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된 1억원은 현금 그대로 이지만 은행이 대출을 할 때마다 새로운 통화가 창출됩니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5번의 신용창출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창출된 통화량은 3억 6856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통화량 지표인 광의통화(M2)를 현금의 양인 본원통화(M1)로 나누면 대개 24~26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통화승수라 하며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본래의 현금이 이만큼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용창출로 만들어진 돈들은 단지 통장잔고로만 표시되었을 뿐입니다.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화량이 많이 공급된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빚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 금융생활 길잡이 - 신용(2)

### 연체와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더해져 다음 달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한 번의 연체가 지속적인 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체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등록 45일 전부터 15일 내에 신용불량자 예정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 등록 시에도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

- ▷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 ▷ 이동통신요금을 연체하여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대신 납부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 국세나 지방세를 500만원이상 연체한 경우
- ▷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한 경우
- ▷ 허위로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신고한 경우
- ▷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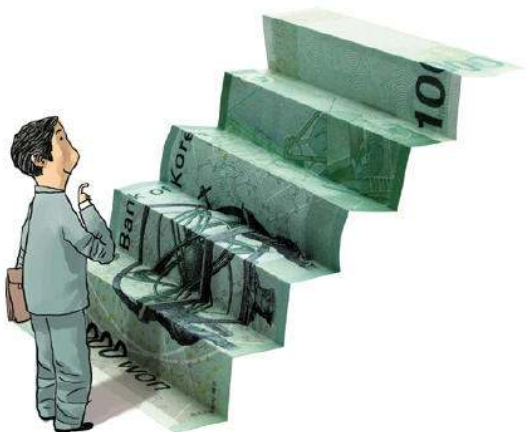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신용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 취업, 공직 진출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게다가 한번 등록되면 연체금을 다 갚더라도 기록 보존기간이 있어 신용불량자와 동일한 제약을 받습니다.

불량기록이 보존되는 경우 (신용조회업자)	기록보존기간
▷ 신용불량등록기간 90일 초과 ~ 1년 이내	1년
▷ 신용불량등록기간이 1년 초과	2년
▷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된 경우	5년

### 신용등급의 의미

신용등급은 신용평점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그룹화한 것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적용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쉬워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등급	구분	의미
1~2	최우량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 보유. 부실화 가능성 매우 낮음
3~4	우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게 우량한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 부실화 가능성 낮은 수준
5~6	일반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 있음, 부실화 가능성은 일반적 수준으로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
7~8	주의	주로 저신용업체와의 거래가 많아 단기연체의 경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 단기적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되면 주의요망
9~10	위험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리가 필요

### 신용정보 관리 잘하기

자신의 신용점수가 낮아 낮은 등급에 포함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는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신용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용정보 관리를 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① 계획적인 지출

자신의 소득을 감안하여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신용거래 시에도 자신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거래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통해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신용정보 파악

자신의 신용거래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잘못 등록된 데이터가 없는지 수시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용정보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거래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엔 신용조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신용조회신청이 과다한 경우 오히려 거래 거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회기록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③ 연체 주의

통신비나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놓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연체기록도 일정기간 동안 누적적으로 반영되므로 유의해야하고 신용카드 연체기록은 최근 3개월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④ 적절한 대출거래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 정도와 무관하게 대출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적정수준의 대출(연소득의 30~50% 내외)이 존재하고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과도한 보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⑤ 신용카드 사용

카드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2~3개의

카드를 보유하고 연체 없이 사용하면 신용점수 상승 요인이 됩니다. 또한 신용거래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카드를 없애지 말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신용평가에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카드사보다는 은행 협약 카드가, 할부보다는 일시불 사용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대출로 간주되므로 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하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⑥ 주거래 은행 정하기

2개 정도의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은행들은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우수고객에 대해 높은 신용점수를 주고 각종 우대혜택을 줍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이체 은행을,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 가맹점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시에는 한 은행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는 것이 여러 금융사를 통한 분산대출보다 다소 유리합니다.



## □ 투자선행지수

2010년 한해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고환율 효과를 유지시키면서 수출을 증가시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는 2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초 4%대의 성장률을 기대했었으나 계속 전망치를 상향조정해가면서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도 활황을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증시는 경기지표의 둔화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경기부양을 통해 풀린 유동성이라는 통계 수치에 나타나지 않은 변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저축성 예금은 증가하고 채권시장 역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시장과 안전자산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위험선호도를 확립하고 엄격한 원칙에 따라

투자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선행지수는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의 연구원들이 오랜 기간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투자선행지수에는 국내 경기와 시중자금의 동향, 상장기업들의 실적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자선행지수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선행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그래프인 투자선행지수가 (-)에서 (+)로 전환되는 시점을 시장진입시점, 반대로 (+)에서 (-)로 전환되는 시점을 시장이탈시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산출된 투자선행지수는 올해 초 (-)로 전환된 후 -3.5를 가리키고 있어 적극적인 매수확대에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